



우수작

대중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가

MBC <나는 가수다 2>

이대일

2011년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나는 가수다 1>

<나는 가수다 1>(이하 <나가수 1>)은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나 프랭크 레이먼드 리비스(Frank Raymond Leavis)의 대중문화에 대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중문화도 고급문화의 수준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가수 1>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드롬과 논란을 함께 제시했다. 시청자들은 제아무리 뛰어난 가수라도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 시청자들은 순위가 발표되고 탈락하는 과정에서 떨고 있는 가수 앞에서 상하관계가 도치된 악의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기도 했다. 한편, 김건모 재도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청자들의 분노가 일기도 했다. <나가수 1>을 또 하나의 부조리한 사회라고 생각한 시청자들은 일제히 절차적 공정성을 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나가수 1> 열풍은

계속되었고, 다양한 패러디를 양산하기도 했다. MBC <웃고 또 웃고 - 나도 가수다>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 <나는 꿈수다>, MBC <나는 트로트 가수다>, KBS <서바이벌 나는 가짜다>, MBC <무한도전 - 나름 가수다>와 같은 패러디 프로그램이 생기는 한편, KBS <불후의 명곡 2 - 전설을 노래하다>와 같이 아이돌판 경연 프로그램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포맷의 일본 수출이 논의될 정도로 <나 가수 1>은 승승장구했다. <나 가수 1>은 2011년 MBC 방송연예대상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했다.

대단히 민주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2>

자연스럽게 2012년 <나 가수 2>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2012년 4월 29일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나 가수 2>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공정성’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소통’이었다. <나 가수 1>에서 시청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요소를 거의 모두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기 위해, 경연과 관련된 규정집을 공개했다. 또한 높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중평가단 수를 크게 늘리는 한편, 생방송과 ARS 문자투표 도입도 시도했다. <나 가수 2>의 지휘봉을 잡은 김영희 PD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한 대화와 소통의 공론장으로써 MBC <나 가수> 시청자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나 가수> 시청자 게시판에서 다수에게 지지받는 의견들은 여지없이 방송을 통해 반영했다. 심지어 익명의 가면을 쓰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소수 의견조차도, 가능한 것은 반영했다. 매주 방송 때마다 하나씩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 음향 문제 개선을 위해 생방송을 다시 녹화 방송으로 전환했고, 인기투표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즉각 반응해 문자투표를 없애는 대신, 모니터 평가단을 도입했다. 가수들에 대한 스토리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수들의 연습과정을 짧은 시간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나가수 2>의 시청률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MBC <나가수 2>는 매우 민주적인 프로그램(democratic program)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나가수 2>는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신선도 높은 무대’를 꾸준히 고민한 흔적도 엿보인다. <나가수 1>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식상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가수를 보여주기 위해 7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2개 조로 나누어 경연했다. 아울러 계륜이라고 평가되던 중간 평가 방송을 없애고 매주 경연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또한, 기존 가수들만으로 이루어져서 자칫 식상함을 불러올 소지가 있었던 예선 중간 지점(9월 2일)에는 ‘새 가수 초대전’이라는 획기적인 도입도 시도했다. 무려 12명의 새로운 가수에게 노래를 부를 기회를 제공했고, 그 중 2명(더웬 소찬휘)은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나가수>에 합류할 수 있었다.

피비우스 피처럼 안과 밖이 뒤틀려버린 <나는 가수다 2>

이러한 <나가수 2>의 노력에도 시청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외면했다. ‘가수왕전’ 이전까지의 시청률만 놓고 보았을 때, 객관적인 성적표는 기대 이하이다. 어떻게 보면, <나가수 2> 제작진, 특히 김영희 PD로서는 대단히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나가수 2>는 규정집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규정집에

제시된 ‘모든 가수들은 기본적으로 단 한 번 노래 부를 기회가 주어진다. 가수가 임의로 중단한 경우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관철시켰다. 7월 고별가수전에서 가수 정인은 「이별의 그늘」에서 가사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영희 PD는 정인을 원칙 그대로 실격 처리했다. 규정을 미리 정해둔 이상, 김영희 PD의 판단은 당연히 옳은 판단이었다. <나가수 1>에서 김건모 재도전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김영희 PD의 판단은 누가 봐도 불가피한 판정이었다. 하지만 김영희 PD 본인의 실제 생각과 일치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외견상 PD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한 파놉티콘(Panopticon)의 개념에 따라 <나가수 2>에서의 권력은 시청자들, 대중들에게 이전되었다. 결국 <일밤> “양심 냉장고”에서 보듯이 인간미를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김영희 PD조차도 묵시적으로 빼앗겨 이전된 권력관계 아래서 그러한 가혹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아이러니하다. 또한 다수의 시청자 의견에 따랐음에도 <나가수 2>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 자체도 모순이다.

<나가수 2>에서 청중평가단은 절대 권력을 가진다. 대중문화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가수들의 순위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보통 사람의 한 표 행사가 모여 절대 권력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영역까지 대중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따를 수는 없다. 몇몇 구체적인 의견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 그 의견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의견을 실제로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은 어디까지나 <나가수 2> 제작진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도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제작진은 대중의 눈치를 지나치게 볼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대중들의 판단에 맡겨 결정해버릴 경우, 의외의 반작용이 생기고
만다. 자칫 소크라테스(Socrates)처럼 중우정치(Populism)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독배를 마셔야 할지도 모른다.

시대적으로 대중에게 외면당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

방송은 사회상을 반영한다. 시청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회 현실에 공감하며 움직인다. <나가수 1>에서 시청자들은 경쟁 중심의
사회상에서 긴장하고 떨고 있는 가수들에게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투영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은 갑갑하다. 적자
생존 서바이벌 구도, 신자유주의식 경쟁체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 대중들이 늘고 있다.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사무총장도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식 세계화도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1년 말 반(反)월스트리트 시위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 시대정신이
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이 시대 시민들은 ‘경쟁’ 안에서도 ‘인간’을
보고 싶어했다.

<나가수 2>에서 ‘가왕전’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가수들에게서 신영복
의 작품 「나는 걷고 싶다」에 그려진 눈사람 형상이 보였다. 가수들은 신발을
바로 앞에 두고 한 걸음도 못 나간 채, 갇혀 있는 눈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또 시시포스(Sisyphos)의 형상이기도 했다. 경연을 해야 하는 가수들은 계속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굴러 올리기 위해 매주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채널을 돌린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과 놀랍도록 똑같아 지겹다고 느끼고 만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분출하
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치솟는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마음껏 발산하

는 쿡카스텐에게 열광하고, 예술적으로 수렴하는 한영애에게 인색했는지 모른다.

견고했던 <나는 가수다 2> 시스템의 뒷과 딜레마

가수들의 인간미를 보여줄 시공간적인 제한이 많았다. <나가수 2> 제작진이 뒤늦게 가수들의 연습 과정을 삽입하고 가수들의 가족을 함께 출연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나가수 1>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현격히 부족했다. 박정현이 보여준 소박한 모습, 김범수가 보여준 의외의 끼, 조관우가 보여준 아버지상, 편견 없이 볼 수 있었던 적우의 인간미는 <나가수 1>의 숨은 성공 비결이었다. <나가수 1>에서는 제작진과의 일방통행 인터뷰 이외에도, 개그맨 매니저와의 자연스러운 쌍방향적 대화 과정이 자주 노출되었고, 이 과정들은 경쟁 톱니바퀴가 원활히 돌아가게 한 유효유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나가수 2>에서는 완벽하게 견고화된 시스템 안에서 가수들의 인간미를 부각시킬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다. 조기 탈락한 가수들은 대개 경연만 보여줬을 뿐이다. 급변하는 대중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기에 시스템이 지나치게 견고했다.

완벽하게 정형화된 틀을 미리 계획해두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제작진에게 뒷으로 작용했다. 대중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시스템상 결코 반영이 불가능했던 영역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달의 가수’로 매달 1등 가수를 따로 뽑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상 <나가수 1>의 경우에는 비교적 탄력성 있게 제작되었다. 그래서 명예 졸업 제도 도입도 문제없이 중간에 삽입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하면 <나가수 2>는 기본적인 뼈대에 해당하는 경연 방식은 완벽하게 견고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달의 가수’

하차에 대해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방관해야 했다. 다른 가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기존의 틀을 도저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5월부터 12월까지 완벽하게 사전에 계획된 틀 속에서 공정과 형평이 있었지만, 의외의 반작용이 발생하고 말았다. 1등 가수를 좋아하던 팬도 함께 나갔다. 대중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필연성과 획일화로 호기심이 떨어진 대중

<나카수 1>에서는 ‘명예 졸업 가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카수 2>에서는 100% ‘이달의 가수’와 ‘가왕’이 나온다는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달의 가수’나 ‘가왕’이 과연 탄생할지에 대한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가수들은 모두 똑같이 ‘이달의 가수’나 ‘가왕’이 되고 싶어 하는 페르소나(Persona)를 쓰고 있었다. 가수들 모두 똑같이 화려한 옷으로 외면을 꾸미고 자신을 숨긴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드러내는 가수들의 내면 심리는 모두 획일화되고 말았다. 그 결과 포장지로 완벽하게 장식된 가수만 있고 그 뒤에 ‘인간’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이수영이 첫 출연에서 「인연」을 손을 떨며 부르고, 이후 통곡하듯 울었을 때, 시청자들도 따라 울었다. 가수로서 그저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는 이수영의 외침에 시청자도 인간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수영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달의 가수’가 되어야 하고 ‘가왕’이 되어야 한다는 <나카수 2>의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중들은 이수영을 서서히 외면했다.

그래도 대중과 교감하는 장을 마련한다면

<나기수 2>에서 MC의 지위와 역할은 모호하다. 특히 이은미가 MC로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 박은지가 대신한다고 해도, 정진영이 대신한다고 해도 다를 바 없다. KBS <이소라의 프로포즈>나 SBS <정재형 이효리의 유&아이>처럼 경연 후에 MC와 가수들이 대화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었는지 모른다. MC가 특유의 개성을 통해 가수들의 인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들이 경연을 마친 뒤 대기실로 들어가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모니터 평가단이 있는 아담한 세트에 와서 MC와 모니터 평가단들과 함께 자신의 경연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실존적 참여 공론의 장을 기대했다면 무리였을까. 한영애가 「Knockin' On Heaven's Door」와 「사랑한 후에」를 놀라울 정도로 고독하게 불렀지만, 정작 ‘인간’ 한영애는 소외되었다. 그리고 끝내 경쟁 구도의 톱니바퀴에서 밀려 나가 쓸쓸히 퇴장할 뿐이었다. 만일 ‘인간’ 한영애가 경연 직후, 대중들과 교감하는 실존적 참여 공론의 장에서 진지한 대화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 약간의 모자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고 빈틈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인간미와 친숙함을 느낀다. 그래서 시청자들도 덜 완벽하지만 인간적인 일반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MBC <위대한 탄생>이나 SBS <K팝스타>에 꾸준한 애정을 보인다. 조기 종영에도 MBC <정글러브>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SBS < 짝>과 달리 MBC <정글러브>는 출연자 스펙 비공개 원칙과 일반인으로서 어설피지만 진중했던 정글 생활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싸이(Psy)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을 가져다준 것도 사실은 음악성 이외에 외국인이 보기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빈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기수 2>의 시청자들도 우연히 드러나는 가수들의 빈틈, 그 빈틈이 자연스럽게 제시된 인간 중심의 스토리 텔링을 원했는지 모른다. 사실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를 불렀던 KBS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서 치열한 경연이 중심은 아니었다. 음원 가치도 미미했다. 어설프지만 반복된 과정에서 감동이 있었고, 대중의 공감 이 있었다.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연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연의 결과물인 음원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경연하는 과정과 경연 뒤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간’ 가수 본연의 모습을 대중은 원하고 있다.

미래의 <나는 가수다 3>을 위하여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현재는 미래와 어떠한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기수>는 시청률과 상관없이 대중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화석으로 남겨진다면 쓸쓸한 아쉬움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나기수 1> 그리고 현재의 <나기수 2>를 시대정신에 비추어 재판단하고, 미래의 <나기수 3> <나기수 4>로 힘찬 도약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짐 히크메트(Nazim Hikmet)가 「진정한 여행」에서 말했듯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